



Cover Story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물류, 제조, 주거, 관광, 복합기능 중심의
다섯 가지 테마지구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초석으로 준비하는 미래

오랜 유적지에 가면 세월을 지키며 남아있는 초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지키는 굳건한 힘으로 초석이 본(本)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초석을 놓으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탄탄한 초석이 올바르게 놓여있을 때 우리 미래도 수천 년의 시간을 지키는

굳건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知

- 04** 63th Theme
겨울 그리고 봄
- 06** Theme Story
성공을 위한 '진짜 초석' 세우기

通

- 08** HOT Topic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청 13주년 /
2017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목표
- 10** Brief News
광양청 8대 뉴스
- 14** Column
멈추지 않고 정진하는 희망의 씨앗 광양만권
- 16** Interview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광양만권의 내일 강정일 위원
- 18** People
21세기 포장산업 선두기업 ㈜승산팩
- 22** Invest in GFEZ
동북아 휴양관광산업 최적의 투자처 화양지구
- 24** Local News
주요기관 소식 및 입주기업

言

- 26** Trip
매화꽃 흠날리는 광양의 봄은 아름다워라
- 30** Festival
살랑이는 봄바람 따라
꼭 가볼만한 봄 축제 & 문화행사
- 32** Work
업무능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시간 활용법
- 34** Economy
신용이 곧 자산 신용등급 관리 노하우
- 36** Cartoon
기업하기 좋은 GFEZ
함께 만드는 더 큰 시너지
- 38** 독자후기 & 이벤트 SNS

0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청 13주년
2017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목표

14 멈추지 않고 정진하는
희망의 씨앗 광양만권

18 21세기 포장산업 선두기업
㈜승산팩

22 동북아 휴양관광산업
최적의 투자처 화양지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GFEZ(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시키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인프라,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춘 한국 경제 자유구역의 선두주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저널 Vol. 63

발행인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편집인

(주)DNS

발행일

2017년 3월 22일 (통권 제63호)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061-760-5091~3)

간행물 등록번호

진남, 바00035

홈페이지

www.gfez.go.kr



겨울 그리고 봄

순천만에 떠있는 아름다운 새 한 쌍을 보았지.
추운 저녁녘을 위에 둥둥 떠다니며
백아강 아침만을 기다리네.

여수 밤바다에 가 보았지.
겨울바람 맞은 듯 바다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불빛들보며
힘겨웠던 추위마저 사라지게 해버리네.

광양에 울퉁 솟은 구룡산에 올라가보았지.
땀방울 뭉글뭉글 이마에서 줄줄 주며
강바람 앞에 한해를 다짐하네.

하동에 아름답게 핀 벚꽃을 보았지.
힘겨운 겨울밤 지새우며 기다려온 꽃잎들은
희망을 알리는 하얀 소망들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네.

눈부시게 빛날 우리들을 보았지
곧 다가올 우리의 희망을 보았지

세상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기를 오늘도 희망하네.



Theme Story.

성공을 위한 '진짜 초석' 세우기

많은 이들이 “성공의 지름길은 좋아하는 일과 내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런 지름길에도 귀찮은 일과 싫어하는 일들이 과속방지턱처럼 포진해있기 마련이다. 성공을 위한 ‘진짜 초석’을 세우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큰 스트레스 없이 해낼 수 있도록 나를 다독이고 지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도 같은 길을 지나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일터로 갔다. 늘 앉던 자리로 가는 중에 익숙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과 일하고 먹고 잠시 쉬기도 했을 것이다. 책상 위에 있는 탁상달력은 이미 석장쯤 넘어가버렸고, 날도 무척 따뜻해졌는데 좋은 기분 사이로 문득 스멀스멀 불안이 올라오기도 한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던 당신은 생각한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은 어찌지?’

새해는, 새 계절은 언제나 당신을 결심하게 만든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지, 일과 가정 사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지, 올해는 꼭 금연해야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지, 운동하고 건강 지켜야지... 어쩌면 당신은 지난해와 똑같거나 ‘약간’ 다른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르겠다.

10분만 들여 곰곰이 생각해보자. 당신이 세웠던 계획 중에 ‘좋아하는 일’은 과연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90% 이상이 싫거나 귀찮거나 망설여지는 일은 아닌가? 그래서 매년 목표보다 적게 뛰거나 손도 대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있을까

한 때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성공한 창업자들이 “성공의 지름길은 좋아하는 일과 내게 맞는 일을 먼저 찾는 것”이라 말했다. 좋아하는 일과 내게 맞는 일을 하면서 긍정의 힘을 키운다면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당신도 알고 있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을 뿐더러,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싫거나 귀찮은 일들이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요리를 좋아한다면 음식을 만들어 맛있게 먹는 이면을 한번 떠올려보자. ‘허리 아픈 설거지’와 ‘냄새나는 음식을 쓰레기 버리기’는 ‘요리하기’와 한 세트를 이룬다. 일에는 언제나 싫은 일, 좋은 일, 귀찮은 것들이 뒤섞여있다. 하기 싫은 일을 피해야며 성취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도 귀찮고 성가신 일과 수없이 부딪히기 마련이다. 이 난관을 넘지 못하면 무언도 이루기 힘들다. 성공을 위한 ‘진짜 초석’을 세우는 것은 싫은 일과 귀찮은 일을 큰 스트레스 없이 해낼 수 있도록 나를 다독이고 지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싫은 마음’에 휘둘리는 나를 들여다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싫은 마음을 꼭꼭 눌러가며 계획을 실행하려고 기를 써왔다. 하지만 참기만 해서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마음은 언제나 지속성이 약하다. 우리는 결심하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다시 결심하기를 반복하며 산다. 때때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해본다. 그런데 하기 싫은 마음에 휘둘리면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고 만다. 우리가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꼭 의지력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보다 부정에 크게 반응하고 귀찮은 것을 싫어한다. 수시로 싫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본능에 기깝고, 이를 억지로 누르려고만 하면 계획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잠재력마저 한풀 꺾이는 것이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지겹고 짜증나는 수많은 일을 돌파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개인과 조직의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상은 사회적으로 성취를 일군 사람들의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크게 주목한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면, 진정으로 그 위치까지 자신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 진부하게 여기는 일을 내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태도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하기 싫은 마음을 컨트롤 할 줄 알면 모든 정신을 목표에 쏟을 수 있게 된다.

하기 싫은 마음 다독이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힘은 연습하면 누구나 기를 수 있다. 싫은 대상이 아니라 싫어하는 나를 보고,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힘>의 저자 홍주현은 ‘잘해야 돼, 잘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격려는 자신감을 주지만 동시에 긴장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자칫 다그침으로 변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제는 다르게, 그동안 하던 말에서 앞뒤 단어를 바꿔보자고 한다. “괜찮으니까 울지 마”가 아니라 “울어도 괜찮아”로, “괜찮으니까 불안해하지 마”를 “불안해해도 괜찮아”로, “별일 아니니까 화내지 마”를 “화내도 별일 없을 거야”로 바꾸어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하는 나를 달래면서 보듬어보자.

<나는 오늘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다>의 저자 그레첸 루빈은 사람들을 준수형, 의문형, 강제형, 저항형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성향은 우리의 관점을 결정하며 습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내게 맞는 습관으로 하기 싫은 마음을 다스려 ‘달라진 삶’을 살아보자고 한다.

위로가 되는 것들 나열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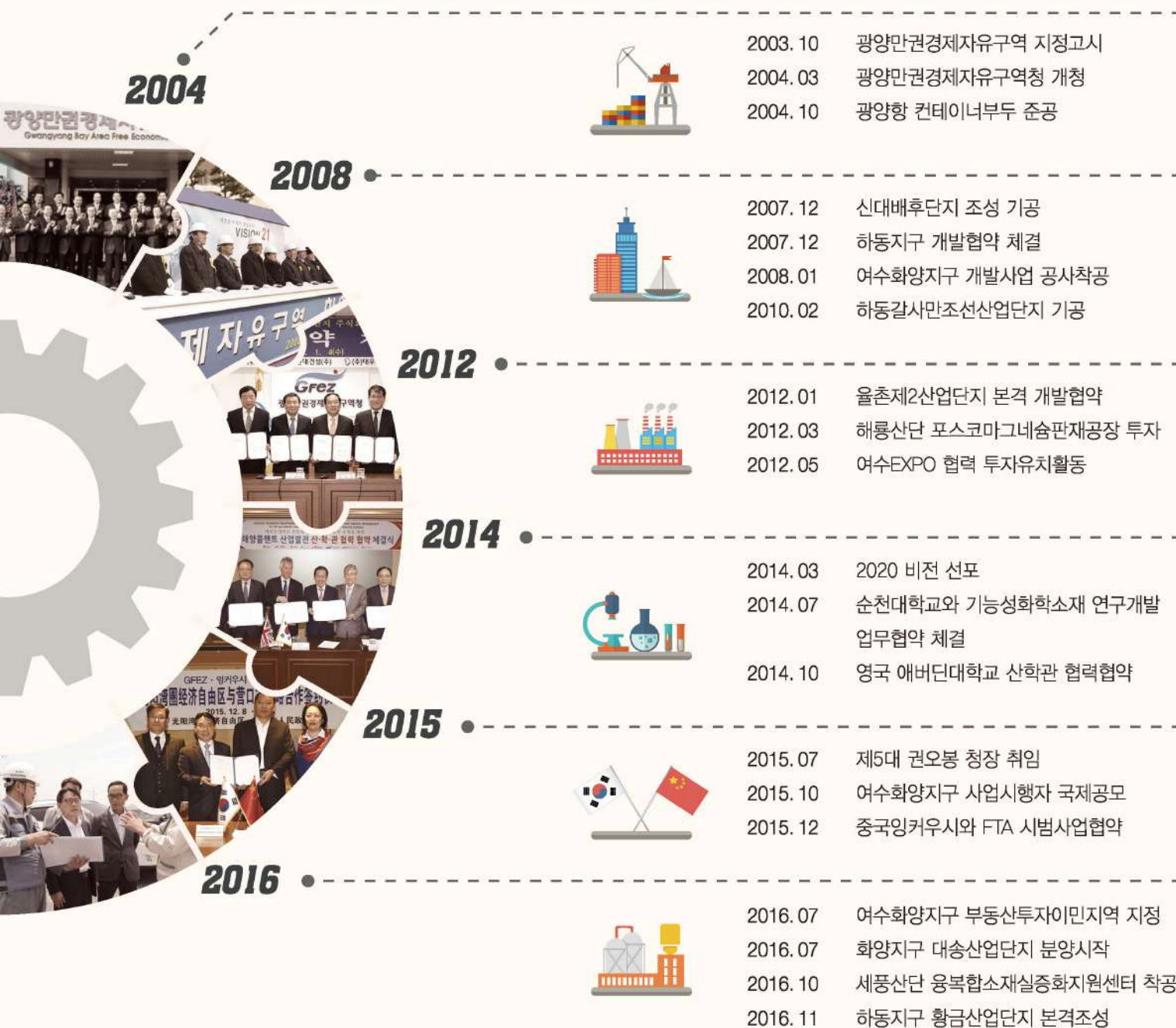
누군가 불쑥 취미가 뭐예요? 좋아하는 음악은 뭔가요? 어떤 영화가 감명깊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바로 대답할 수 있을까? 다섯 개 이상 대답할 수 없다면 목록을 한번 만들어보자. 당신을 위로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적어보는 것이다. 꼭 어떤 작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년전 누군가와 함께 했던 장소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손톱을 깎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사소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싫은 일들을 해내다 지치는 날이 오면 목록을 꺼내보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순간을 만들어주자. 싫어하는 일들을 해내며 스스로 다독이는 방법들을 먼저 찾는다면 예전과는 달라진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달력은 이미 석장쯤 넘어가버렸고, 날도 무척 따뜻해졌는데 좋은 기분 사이로 문득 스멀스멀 불안이 올라오는 봄이다. 올 봄에 당신이 세운 ‘진짜 초석’은 당신을 꼭 성공으로 인도하기를.

HOT Topic

글 홍보담당관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청 13주년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2004년 개청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로 개청 13주년을 맞았다.
광양만권을 동북아 물류·신산업·관광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권역 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열정적인 투자유치

투자유치
2.4조원국내기업
+
해외기업FDI
5,000만불

광양만권주력산업

- 철강·화학관련 선도기업
- 기능성화학소재 등 미래선도산업

세계경제상황을 반영한 전략

- 한중FTA를 이용한 중화자본 유치
- Brexit 등 세계경제상황 반영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 만들기

평당분양가
75만원세풍산단
+
해룡산단

윤택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정주인구
20,000명국제외국인학교
+
의료기관

세풍산단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
· 2017.11월 완공예정
· 친환경산업에 기여하는 수출전진기지

해룡산단 뿌리기술평화단지
· 광양만권 특성에 맞는 기술특화
· 국가기간산업인 뿌리산업 발전·육성

지역민과 소통·화합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 2017.9월 개교예정
- 석·박사과정 연간 120명 배출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준비

- 국제교육기관, 의료기관 유치
- 영화관, 쇼핑몰 등

노사민
5월

노·사·민 화합한마당
+
광양만권
취업박람회

취업박람회
11월

기업과의 끊임없는 대화

대상기업
81개사1기업 1도우미
+
기업사랑자문단자문위원
6명

입주기업직원·지역주민이 한자리에
· 2017.5월 제2회 개최 예정
· 입주기업 생산품전시·홍보, 노래자랑 등
· 기업과 마을간 자매결연체결

지역민의 취업과 입주기업
인력난 동시해결
· 2017.11월 연관기관 공동개최
· 광양만권 연간 약1,500여개 신규일자리

세계인을 이곳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창구

- 분기별 기업방문상담추진
- 상시 전화연결을 통한 해결사

손쉽게 접하는 전문가 상담

- 법무·세무·노무 등 전문가 집단
- 빠른 문제해결의 지름길

화양개발가치
약 4조원화양복합관광단지
+
경도경도투자예정
약 1.2조원13th
GFEZ 개청13주년

우리의 노력
광양만권의 미래

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

- 화양과의 시너지효과로 남해안권 관광거점

테마가 있는 복합관광단지 화양 조성

- 대규모 콘도개발·휴양형리조트
- 부동산투자자민을 활용한 중화권 자본유치

201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목표

WORK
LIVE
ENJOY
GFEZ

BUSINESS

01/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개시

미래형 소재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 이하
광양경제청)이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우선착수부지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을 1월
6일부터 시작했다.

분양면적은 268,077㎡이며, 분양가격은
257,100원/㎡이다. 현재 우선착수부지 단지
조성 공정률은 67%로 단지 내 도로, 상하
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올해

6월말까지 우선착수부지 조성을 완료한다
는 계획이다.

현재 산단은 공장 설립이 가능한 상태이며,
입주기업에게는 세제감면 혜택과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체 2,426,756㎡로 조성되는 세풍산단은
광양만권의 지리적 위치(항만, 철도 등)를
기반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의 철강과 여수
국가산단 관련업체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세풍산단 내 조성되는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는 KTR*의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
센터 및 KCL**의 (가칭)이산화탄소활용기
술센터가 건립되어 관련 산업 입주기업이
R&D, 평가, 인증 등의 서비스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BUSINESS

02/

새출발 다짐, 광양경제청 직원
신년 산행
투자유치와 성공적 개발을 위한
화양지구 고봉산(363m)

광양경제청은 2017년 정유년 “광양만권
성공적 개발과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화양지구 고봉산 전망대에서 청장
이하 간부 및 직원들이 새출발 다짐 함성을
외쳤다. 이날 산행은 광양경제청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화양지구를 비롯한 각
지구별 개발과 투자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올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
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USINESS

03/

광양만권경제청, (재)전남테크노파크,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상호협력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
투자 유치 탄력

광양경제청이 지난 1월 12일 (재)전남테크노
파크,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과 기업유치
상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협약을 통해 광양만권경
제청은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남생물산업진
흥원이 연구·개발한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
유치와 함께 차질 없는 고품질 산업용지
공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남테크노파크는 기술개발·마케팅·시설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광양만권 입주기업들
을 적극 지원하고,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기능성 화학 소재 관련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해당 기업들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권오봉 청장은 “전남의 전략산업 육성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세 기관이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
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USINESS

04/

광양경제청, 신년 기자회견 개최
올해 2조 4천억원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차질없이 추진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는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투자유치 목표액 2조4천억 원과
75개 기업, 4천여 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
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인 권청장은 투자
유치 전략, 산단 조성계획, 투자협약 체결,
진행 중인 사업의 향후 일정 등 GFEZ의
성장을 위한 여러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밝혔
다. 이어 “지역민과 입주기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GFEZ를 기업하기 좋고
지역주민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모델
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60여명의
취재기자가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세풍
산단 개발과 투자유치 방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한편 광양
경제청은 지난해 78개 기업 1조 5,701억원
의 투자실현과 27개 기업과 1조 428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BUSINESS

05/



광양경제청,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

광양경제청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했다. 권오봉 청장은 지난 1월 23~24일 사회복지시설 및 마을경로당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세풍산단 삼성경로당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여수 동백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어린이들과 명절의 기쁨을 나누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이웃 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어 화재로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여수 수산시장 피해상인을 돕기 위한 '설 장보기' 행사에서는 광양경제청 소속 공직자 30여명과 함께 '설'에 필요한 제수용 수산물 등을 구입하며 임시판매장 상인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BUSINESS

06/

광양경제청, 2017「기업지원 시책
합동설명회」성황리 개최

광양경제청은 지난 2월 15일 전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광양만권 입주기업 지원 2017년「기업지원 시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17개 기관과 광양만권 입주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해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돼 평소 기업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 자금지원, 개솔개발, 판로개척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 기업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광양경제청은 “1기업 1도우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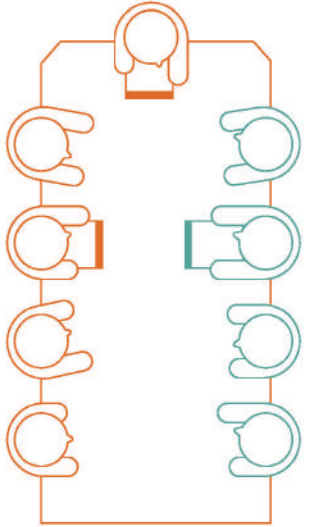
“찾아가는 건강돌봄미제”, “기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기업사랑 자문단 운영” 등 기업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신규 입주 기업 집중 컨설팅 T/F팀” 운영,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광양만권 일자리 합동 취업 박람회”, “1기업1마을 자매결연” 등 신규 사업을 설명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앞으로도 광양만권에 입주한 기업의 애로와 고충 해소를 위해 기업 현장방문, CEO포럼 및 간담회, 워크숍 등 기업과의 소통 유대 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좋은 산단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USINESS

07/

광양경제청, 산단 개발 추진상황
주민 설명회 개최

광양경제청은 지난 2월 22일 광양만권 개발 지역 및 인근마을 주민대표 30여명을 초청해 산단 개발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울촌제1·2일반 산업단지와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순천해룡 일반산업단지,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광양 복합업무단지 및 웰빙카운티단지, 황금산업단지개발 등 여수시 울촌·화양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골약동 4개 읍·면·동 개발지역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실시했다. 이후 주민대표들의 지역별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상호 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앞으로도 개발과정에서 지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산단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관계부처, 전남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산단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 되어 지역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간다고 밝혔다.

BUSINESS

0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중국식품컨소시엄 등 2개 기업 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개 기업 314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광양경제청은 지난 2월 28일 광양항 서측 배후부지에 냉동창고와 물류센터 조성을 원하는 2개 기업과 314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중국안후이푸드체인컨소시엄은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99,000㎡

부지에 냉동창고(16,500㎡)와 식품가공시설(26,400㎡)을 건립할 예정이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 소재 동바오식품, 홍후이집단, 구이왕식품, 바이창냉장, 바이란 식품 등 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중국의 반가공 식품을 수입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최종 가공 후 일본, 유럽,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창호 제조기업 (주)한국창호는 세풍산업단지에 14억원을 투자하여 3,300㎡ 부지에 알루미늄 창호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마부정제의 자세로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GFEZ

멈추지 않고 정진하는 희망의 씨앗 광양만권

봄은 새로운 시작, 생명, 활력을 상징하는 계절입니다.
「3월에 꿈꾸는 사랑」(이채)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꿈을 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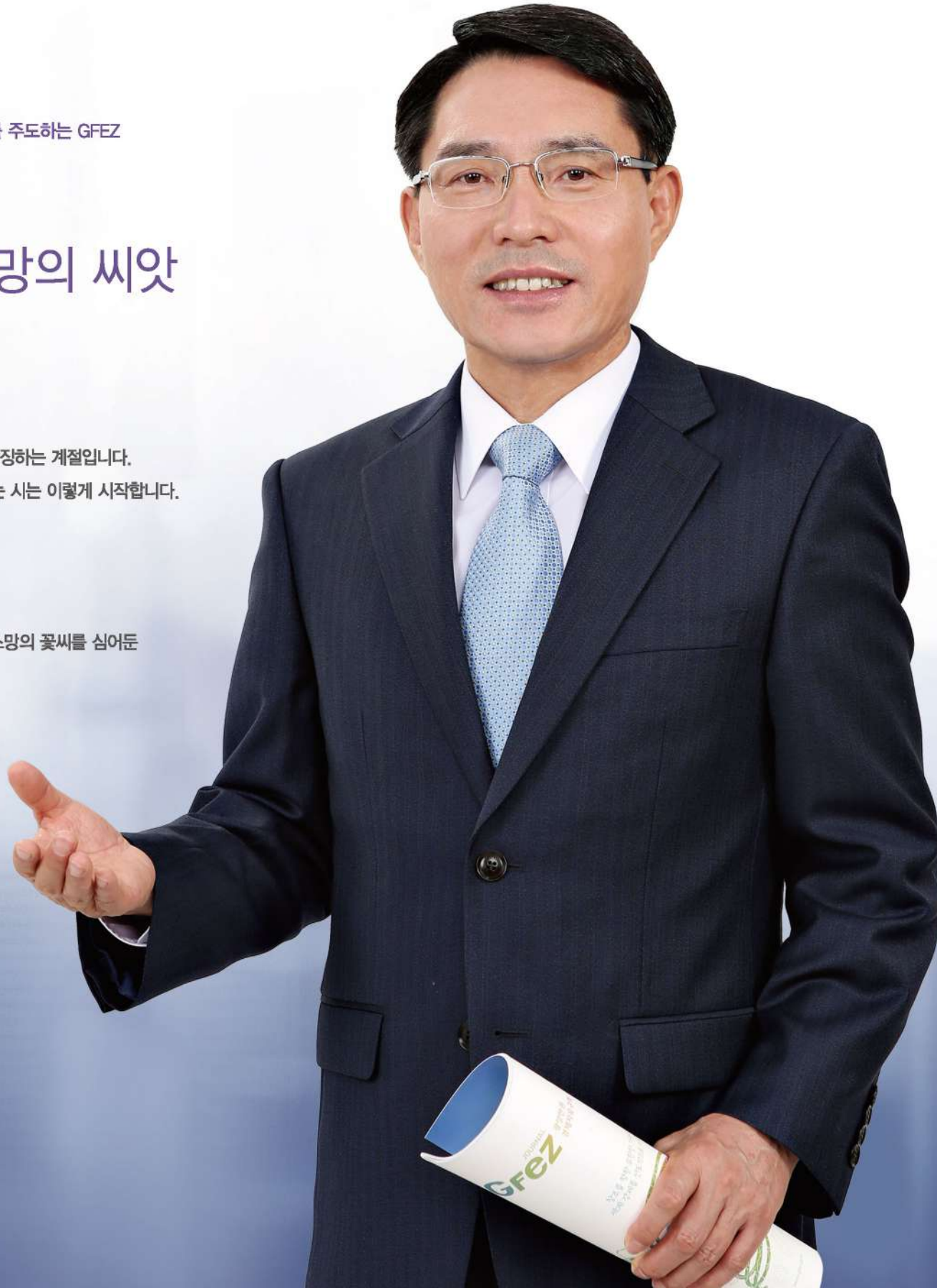
그 꿈을 가꾸는 당신은

여린 풀잎의 초록빛 가슴이지요, 소망의 꽃씨를 심어둔

삶의 트랙에

기도의 숨결로 방긋 웃는 꽃망을

(이하 생략).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쓰는 마부정제의 자세,
마음을 가다듬고 면밀하게 계획한 바탕 위에서 열정을 다하는
정진의 태도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꿈을 가꾸어 실현하고 꽃씨를 받아하여 꽃망을 터트리듯 우리청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진전시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금년도 우리청의 일하는 마음가짐을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발전하고 정진하자는 뜻의 ‘마부정제(馬不停蹄·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로 삼고 ‘투자유치’라는 탐스러운 결실을 맺고자 다섯 가지 싹을 틔우려고 합니다.

하나, 2조 4천억을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광양만권의 주력사업인 철강, 화학 선도기업은 물론, 기능성 화학소재 등 미래 성장산업과 산단 별 특성에 맞는 산업별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목표를 꼭 달성하겠습니다.

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단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풍산단의 융복합소재 실증화지원센터 건립, 외국인 투자지역 조기 지정, 울촌2산단의 1단계 매립 완공과 해룡산단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황금산단과 대송산단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셋, 글로벌 수준의 정주도시 건설과 화양복합관광단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선월하이파크, 웰빙카운티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이민을 활용하여 중화권 자본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넷, 하동 갈사만의 해양산업연구와 교육기반을 최대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개원과 R&D센터 연구 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영국 애버던대학교 하동캠퍼스 개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지역민과 입주기업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고용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양만권 합동 취업박람회와 1기업 1도우미제, 기업

사랑 자문단 등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사와 지역주민이 소통·화합하는 노사민 한마당 행사와 기업-마을 자매결연으로 기업이 일하기 좋은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 다섯가지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진 즉 ‘정진’의 자세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청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쓰는 자세, 마음을 가다듬고 면밀하게 계획한 바탕 위에서 열정을 다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외 전반에 걸쳐 유례가 없는 경기 위축과 수요 부족으로 한국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청은 약 1조 6천억원의 투자유치와 세풍산단 개발, 화양지구, 울촌2산단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발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국내외 경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미국 신정부의 금리인상 및 보호무역 강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사드로 인한 국제 갈등과 불안한 국내 정세 등으로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여건과 투자유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수록 더 치밀한 전략을 세워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의 산업역량이 결집된 곳인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2016년의 성과를 이어가고 2017년에는 국내외 여건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과 입주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 제 10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광양 YMCA 이사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강정일 위원

Q GFEZ 조합회의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조합규약 및 조합규정 제·개정안, 예·결산안,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조정 등 경제청의 주요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광양만권 사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 시책에 관한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양경제청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향 제시, 자치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광양경제청이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돕는 것이 조합회의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 신임 조합회의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다양한 현안 논의와 안전 처리가 진행되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작년 8월 GFEZ 조합회의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투자유치의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부터 광양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지부진한 사업지구의 구조조정 문제 등 광양만권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울촌2산업단지의 준설토 투기장 매립문제와 세풍, 황금, 해룡,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세풍산단의 기능성화학소재 산업유치, 해룡산단 뿌리산업 중점 유치, 투자이민제 활용 관광분야 타깃 기업 집중 유치, 경도 경제자유구역 편입요건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였고 현재 하나 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Q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시면서 지역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궁금합니다.

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부에 위치하였다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5개 지구 21개 단지가 물류와 관광, 생산 기능 등의 특화단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국가산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등 비교우위의 산업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기업 친화적 환경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투자가치가 뛰어난 경제자유구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이와 같은 강점을 배경으로 상당한 수의 기업유치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보다 국내기업의 투자유치가 많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임커우시에 한중 홍보관을 설치하여 맞춤형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 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유치 및 개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광양만권은 보다 활기 넘치는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성장할거라 기대합니다.

Q GFEZ의 성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나 경남도 혹은 중앙정부 등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A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

라는 타이틀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산업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광양경제청의 역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정원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현원을 전문가 영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정적, 행정적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Q 위원님께서 현재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수행하셨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저는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냉동·점통 교실 해소, 학교 앞 문방구 살리기, 스마트교실 구축, LED등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청암뜰 염수피해 해결책 마련, 861호선 광영~망덕 간 교량설치 예산확보, 옥곡, 진상~다압 간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 진상 용계마을 앞 보행로 설치, 마을 주민쉼터 설치, 농로·임도포장 등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립미술관 유치, 창의예술고 유치, 광영건강지원센터 유치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Q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으로서, GFEZ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의 활동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A 조합위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회의 위원들 간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발전방향과 GFEZ의 발전전략이 제대로 융화되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세풍산단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세풍산단 공업용수로 건설사업에 따른 문제도 광양경제청과 광양시가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광양만권 성장을 이끄는 협력 시너지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광양만권의 내일

강정일 위원

끝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21세기 포장산업 선두기업

(주)승산팩

(주)승산팩은 폐기물과 미생물 발생이 전혀 없는 개방형 스틸박스 와 파레트를 비롯해 가격이 저렴하고 중량이 가벼운 수출용 포장 골판지를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우수기업이다. 주요 생산품인 중량형포장박스 브라켓과 물품포장박스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품질관리시스템 및 환경관리시스템 인증을 받을 정도로 보유기술이 뛰어나다.

선물을 풀어보기 전과 택배 상자를 열기 전에는 언제나 설렌다. 포장은 고객에게 제품을 만나기 직전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종전에는 포장의 기능과 중요성을 '보호'에 맞추는 것에만 충실했으나, 현대에는 판매촉진 기능에도 중점을 둔다. 생산된 물품 자체만으로는 상품이라 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포장을 마쳐야만 비로소 상품화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송포장의 경우 외장의 형상·치수·중량 등이 수송·보관·하역에 편리해야 하므로 포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승산팩은 폐기물 및 미생물 발생이 전혀 없는 개방형 스틸박스 와 파레트를 비롯해 가격이 저렴하고 중량이 가벼운 수출용 포장용 골판지를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 우수기업이다. 특히 주요 생산품인 중량형포장박스 브라켓과 물품포장박스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품질관리시스템 및 환경관리시스템 인증을 받을 정도로 보유기술이 뛰어나다. 승산팩은 종이박스를 생산하는 개인사업장에서 출발해

2002년 경남 김해 제1공장을 설립하면서 포장분야 주요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반 상자 외에 중량물 특수포장과 산업용 부품수출포장 분야에 기술력을 확보하여,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및 만도 등의 기업의 1차 협력사로 거듭났다.

지난 2015년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 울촌1산단 1만8500㎡ 부지에 105억 원을 투자해 금속파렛트 생산공장을 기공식을 개최했다. 사업확장에 따라 추가로 7800㎡ 부지에 50억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설비투자, 연구개발, 인재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주)승산팩 강명완 대표이사를 만나 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포장전문기업’이라면 생산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납품처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느 분야에 주로 납품하는지?

울촌산단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는 김해공장에서 한국 GM대우에 골판지 상자와 나무 파레트를 공급했다. GM대우는 헤드라이트부터 시작해 다양한 자동차부품들을 생산해 해외(우즈베크)로 보내 조립하는데, 그 제품들을 포장할 수 있는 골판지 상자와 나무 파레트를 주로 생산한 것이다. 기존에 생산하던 나무 파레트는 곰팡이 문제와 수출시 훈증처리(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벌레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스틸파레트까지 생산하게 되었는데, 당시 경남지역에서는 스틸파레트를 처음 시도했다. 특허낸 중량물 스틸파레트는 한국경제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우리기업의 성과를 전해들은 금호석유화학이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를 계기로 여수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여수공장에서는 중량물을 포장할 수 있는 스틸파레트를 주로 생산해 금호폴리캠 등에 납품하고 있다. 스틸파레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 스틸파레트를 주로 생산하고 박스는 부가적으로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상하판용접기 공급은 물론 원자재 공급, 롤포밍기공급까지 스틸팔레트의 전문야를 맞춤 공급



생산제품 중 개방형 스틸박스과 파레트는 폐기물과 미생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특허를 받았다. 어떤 원리인가? 다른 장점이 있다면?

주재료가 스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파레트는 미생물, 곰팡이가 생기고 벌레들이 알을 낳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래서 뜨거운 불 속에서 꺼내는 과정(훈증처리)이 필요한데,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리를 하기가 어려웠다.

스틸제품은 이 과정이 필요치 않아 경제적이다. 또한 기존 나무와 플라스틱 파레트는 한번 사용하면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이다. 그러나 스틸로 만들어진 파레트는 추후에 다시 재생시켜 활용할 수 있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승산팩은 이곳 여수공장 외에도 대저, 김해, 미국 알라바마주에도 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사업장에서 출발해 큰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오래 전 고모부와 부친이 함께 부산 대저에서 칼라박스(과자상자처럼 포장인쇄된 박스)공장을 운영하신 것이 시초다. 사업장을 분리하던 1988년, 부친께서 경남김해에서 골판지 박스 공장을 창업하셨고 2002년에 이르러 본인이 (강명완 대표이사) 김해에 (주)승산팩 법인을 설립하였다. 2004년에는 한국GM과 거래하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 분

야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이 생겼을 때 승산팩도 함께 진출했다.

다른 박스 업체들은 인건비가 짝 동남아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우리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간 것이다. 각 공장마다 따로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였다. 본사와 지사로 구분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법인이 본사가 된다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주)승산팩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일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진출을 했다. 이전에 현대와 상호 교감을 가지고 진출한 것인가?

사실 상호교감은 없었다. 우연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한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둘째 동생이 유학길에 올라 미국에서 공부를 마쳤을 때였다. 현지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현대가 미국 알라바마에 진출했다. 한국 기업에 맞는 기업은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했다.

우연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60만불을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기계와 인력을 파견했다. 그리고 발로 뛰는 열정과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서비스로 현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승산팩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강점은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열정이다. 포장을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특수포장의 경우 적재방법 연구는 비용절감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제품을 효율적으로 더 많이 실을 수 있을 것인지' 열정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곧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박스와 파레트만 생산하는 기업으로 나뉘어있다. (주)승산팩은 파레트, 포장 모든 것을 다 담당하며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과정을 커버할 수 있는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광양만권에 입주해있는 기업으로서 제시하는 광양만권의 발전상이 있다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광양만권의 발전상을 제안한다면 '큰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기업이 유치된다면 그 기업과 관련된 1, 2, 3차 협력기업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오게 된다. 때문에 협력업체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제조 대기업 유치가 광양만권의 성장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기업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21세기 포장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설비투자, 연구개발, 인재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환원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연말연시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광양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겨울철 김장담그기, 노후 된 시설 개보수, 입소 어르신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 등 다양한 사랑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보람이 컸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승산팩의 앞으로의 비전,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올촌산단에 입주해 또 한 번 도약을 앞두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노력으로 향후 많은 기업이 모여들 것이라 기대되는데, 기존의 노하우로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포장해보고 싶다.



이병도 - 관리부 과장 / 이초희 - 관리부 사원

임직원들과 속닥속닥

Q1 (주)승산팩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1 이병도 우리 기업 외에는 전남 동부권에 스틸파레트와 골판지박스를 제조하는 업체가 없다. 저희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근거리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이초희 환경이 좋다는 것이 강점이다. 산단이라고 하면 조립식으로 된 건물, 딱딱하고 건조한 느낌의 커다란 공장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회사는 카페 같은 느낌으로 잘 꾸며져 있어 쾌적한 느낌을 준다.

Q2 승산팩만의 자랑할 만한 기업문화가 있다면?

A2 이병도 동아리 활동이 있다. 회사에서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척 만족한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자기개발 및 직무활동(요가, 골프, 자격증 등)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과 여가의 균형이 조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Q3 회사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3 이병도&이초희 지난해 광양만권에 입주하게 되면서 사실 모든 것이 새롭다.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든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

Q4 직원으로서 이뤄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A4 이초희 광양만권에 입주한지 1년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화되어 큰 성과를 이뤄내고 싶다. 사장님께서 항상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곧 이 같은 바램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화양지구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으로 자리매김

동북아 휴양관광산업 최적의 투자처

화양지구

화양지구는 일교차가 작고 따뜻한 해양성 기후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해양 스포츠, 골프 등 휴양관광산업 최적의 투자처이다. 화양지구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주변 섬들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 파도가 잔잔해 마치 거대한 호수를 보는 듯 하며, 푸른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일몰은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룬다.

“해양 관광 및 스포츠, 휴양 등 국제적인 복합 관광단지 개발,
다도해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관광벨트 거점으로 자리매김”



화양지구는 그동안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주)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까지 디오션 골프장(18홀)과 연수원 등을 일부 사업만 진행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최근 사업시행자의 재정 상황이 호전되고 추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높아지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에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의 필수요건인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콘도미니엄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콘도미니엄은 금년 상반기 중 착공 목표로 개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12만㎡(약 4만 평)에 객실 규모 322실로 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화양지구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국제공모를 추진하여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화양지구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가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투자 잠재력이 큰 중화권 자본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어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

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화양지구는 2016년 7월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시행되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책으로 화양지구는 5억 원을 투자한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더욱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이 2018년, 국도 77호선(여수~고흥)은 2020년 준공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화양지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국도 77호선(여수~고흥)은 연륙·연도교 5개소를 포함하고 있어 인근 섬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관광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여수시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본격 준비

국제해양 관광의 중심 여수에서 오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개최된다. 도내 22개 시·군에서 선수단과 임원 2만 7천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제56회 전남체전은 '해양관광 여수에서 하나 되는 전남의 힘'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17개 경기장에서 23개 종목으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전남체전 최초로 카약을 전시종목으로 채택해 국제 해양관광 중심도시로서 여수의 위상 제고와 해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여수시는 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이 쾌적하고 완벽한 시설에서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3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남 주경기장 등 10개 경기장의 개·보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가득한 광양불고기파크 조성

광양시는 지난 2월 9일 '광양불고기파크'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천변 일원에 총 15억원을 투자해 각종 공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이번 사업은 '광양불고기파크'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특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개장한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으로 광양불고기를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 도립미술관 개관, 폐철도주민친화적 문화재생사업을 통한 주변 관광인프라가 형성되면 더욱 불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불고기가 광양읍권 발전을 주도한 만큼 광양불



순천시

양곡창고가 청년들을 위한 청춘창고로 탈바꿈

순천역 부근 양곡창고가 청년들의 창업공간이자 청년문화가 교류하는 청춘창고로 탈바꿈 되었다. 시는 역사성을 지닌 양곡창고 대부분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청년점포 22개와 공연공간인 이벤트 스테이지, 미팅큐브, 오픈 스튜디오 등 먹거리, 살거리와 문화가 있는 청년층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청년점포는 1, 2층으로 나누어 청년 상인들만의 특색을 갖춘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2년간 자신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성장하여 졸업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다른 창업 공간과 차별화 한다는 전략이다. 청년들 스스로가 협의체를 가지고 자유롭게 운영되는 청춘창고는 평일과 주말 오전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일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광양시



고기 특화거리 브랜드를 통한 음식문화 인프라 창출로 침체된 광양읍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을 기대한다.

경 가루녹차 100톤 수출 계약

2017. 1. 24(화) 11:00 하동군, 비전코리아



입주기업

현대상사-라인호, 러시아에 세계최대 규모 선박이동설비 공급

라인호㈜와 현대중합상사가 지난 2월 28일 러시아 국영 즈베즈다(Zvezda) 조선소에 5만4000t급 선박이동설비(Ship Transfer System)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공급하게 될 5만 4000t급 선박이동설비는 현존하는 조선 설비 중 최대 규모다. 전체 사업금액은 약 200억 원으로 라인호㈜가 설계에서 제작, 공급, 설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라인호㈜는 전남 순천 울촌산단에 소재하고 있는 자체 동력 중량물 이송 설비 생산 전문 업체다.

국내외 20여개 이상의 특허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해양·건설 산업 중량물 이송설비 공급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국영국동조선소

하동군

'왕의 녹차' 스타벅스 통해 전 세계로 수출

지난 1월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국내 무역업체 비전코리아와 친환경 가루녹차 100t 215만 달러어치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차의 고장 하동에서 생산된 '왕의 녹차'는 세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를 통해 미국은 물론 EU,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이번에 군이 대규모의 가루녹차를 수출하게 된 것은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하동 '왕의 녹차'에 대한 우수성이 인정된 때문으로 평가된다. 실제 하동군은 왕의 녹차 주 생산지인 화개면 전역을 '무농약지구'로 선포하였고, 최고급 가루녹차 생산을 위한 멧들기 생산시스템을 도입해 호평을 받았다. 군은 올해 100t 수출계약과 함께 해마다 수출물량을 늘려 알프스 하동을 고급 가루녹차 수출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FESRC) 산하 즈베즈다 조선소는 러시아 정부의 조선사업 육성정책에 따라 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 중이다.

라인호㈜는 관련 사업 참여를 위해 러시아 시장에서 선박 및 조선설비 공급과 관련해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중합상사와 사업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조했다. 라인호와 현대중합상사는 이번 수주를 통해 선점한 러시아 시장 내 조선설비 공급에 대한 입지를 다지고 활발한 추가 수주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光陽

광양

매화꽃 흠날리는 광양의 봄은 아름다워라

따스한 햇살이 밀려오자 겨우내 움츠렸던 매화나무가 하얀 꽃망울을 펼כן처럼 툭툭 터트리며 봄을 알린다. 새 봄이 흰 물결 따라 넘실거리자 명달아 일렁이는 부푼 마음은 감출 길이 없다.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만큼 가벼운 발걸음으로 광양 봄나들이를 떠나보자.

꽃길따라 물길따라 섬진강 매화여행
마른 가지 끝 몽글몽글 맺힌 매화꽃이 광양의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다. 겨우내 움크렸던 마음에 따뜻한 봄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이른 새벽 광양으로 향했다. 광양 백운산 자락 매화마을에는 무성하게 핀 매화가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절정을 이룬다. 섬진강의 새벽 물안개가 자욱하게 퍼진 매화마을은 벌써 매화향이 온 천지를 가득 메우고 있다. 잘 정돈

된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니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화사한 봄의 시작을 알리며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린 홍매화부터 이제 막 몽우리를 맺은 청매화, 백매화가 마을 곳곳에 꽃물결을 이룬다. 뒤로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매화 천지 사이에 조그마한 군락을 이룬 대나무길이 나온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대나무 숲이 차르르 차르르 청량한 소리를 내며 푸른 여유를 준다.



섬진강이 선물하는 봄의 맛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 남해로 흘러가는 망덕포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있는 기수지역이다.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에는 먹을 것도 많다. 빻굴, 재첩, 장어, 전어, 백합이 유명해 사시사철 남해의 진미를 맛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꽃놀이를 즐긴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망덕포구로 다시 모인다. 시원스레 뿜어있는 포구 해안 데크 너머 분주한 어선의 모습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 봄을 실감케 한다. 빻꽃 피는 계절에 맞출 수 있어 빻굴이라고 불리는 이 큼직한 굴은 음력 1월부터 4월 중순까지만 맛볼 수 있다. 까다로운 조건 탓에 양식도 불가능한 빻굴은 잠수부가 깊은 섬진강 물속 바위에서 하나하나 채취해 더욱 귀하다. 크기도 엄청나다. 일반 굴에 비해 10배나 큰 굴은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내지르게 한다. 섬진강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빻굴은 숯불에 올려 구워 먹는 빻굴구이가 제 맛이다. 석쇠 위에 살짝 구운 굴은 탱글탱글한 우윳빛을 낸다. 어슷하게 썬 마늘대를 올려 한입에 넣어보니 풍부한 향과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진다. 이 봄이 가기 전에만 느낄 수 있는 꽃구경 맛구경은 섬진강이 주는 선물이다.



여유와 쉼이 있는 망덕포구 & 배알도 수변공원

섬진강의 별미를 맛본 후에는 망덕포구 이곳저곳을 거닐며 구경을 해도 좋다. 포구 앞 해상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 배알도와 푸근한 덕유산이 만들어내는 경치가 아름답다. 맑은 물빛을 반짝이는 섬진강의 봄 풍경을 배경으로 데크길을 따라 걷다보면 정병욱 가옥도 만날 수 있다. 정병욱 가옥은 운동주 시인의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숨겨져 있던 장소이다. 일제 강점기 시집의 출판이 어려워지자 운동주 시인은 원고를 절친한 친구 정병욱에게 맡겨두었고 그 덕분에 잘 보관된 유고가 광복 후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원고가 보관되어있던 정병욱 가옥은 현재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다. 가옥은 뒤편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삶의 흔적이 남아 있어 더욱 흥미로운 곳이다. 망덕포구에서 더 내려가 태인대교를 건너면 배알도 수변공원이 나온다. 섬진강 종주 자전거길의 종착점이기도 한 배알도 수변공원은 남도대교부터 몇 시간을 자전거로 내리 달려온 지친이들이 가쁜 숨을 고르는 휴식처가 된다. 바다를 끼고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배알도 수변공원은 산책길과 자전거도로, 캠핑장이 잘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가족, 친구, 연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백사장을 걷는 재미도 쏠쏠하다. 아가자기한 느낌을 주는 작은 백사장이지만 사부작 사부작 걷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의 공간 광양 김시식지

배알도 수변공원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광양 김시식지(海衣始殖地)가 있다. 김시식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김과 관련된 곳이라는 것을 유추하기는 쉽지만 '시식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자를 풀어보면 쉽다. 김시식지는 '해의(김)를 처음 양식한 곳'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김시식지에 가면 우리 밥상에 언제부터 김이 올라왔는지, 김을 처음 양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과거 삼국시대 때부터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은 조선시대에는 진상품과 무역품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이 김을 1650년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양식법을 만들어낸 것이고, 김시식지는 이 김여익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이다. 제각인 영모재 바로 앞에는 김역사관이 있다. 김의 유래와 역사, 생산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다. 특히 김 양식의 전 과정을 재구성한 작은 모형들은 김을 생산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주어 흥미를 더한다. 관련된 기록 유물과 사진자료까지 잘 전시되어 있다. 김시식 유물 전시관에는 과거의 생산 도구들도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세한 해설도 들을 수 있어 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Festival

글 편집실

살랑이는 봄바람 따라 꼭 가볼만한 봄 축제 & 문화행사



3.29~4.2 제 11회 광양 꽃축제

4.1~4.2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

연중 순천만 천문대 하늘 체험

5.4~5.7 여수 거북선축제



제 11회 광양 꽃축제

제 11회 광양 꽃축제가 '행복한 꽃나들이! 해피 아이! 힐링 광양!'을 주제로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광양 꽃축제는 다육식물관, 튜립관, 테마온실, 친환경 농업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미술체험, 노래자랑 등 어린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생활원에 경진대회도 진행해 보다 풍성한 꽃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아름다운 꽃과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한 이곳에서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

📅 2017.3.29(수) ~ 2017.4.2(일) / 5일간

📍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시험포장

☎ 061-797-3788 (광양시 도시농업팀)

🌐 www.gwangyang.go.kr/tour_culture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

꽃샘추위가 끝난 4월의 화개에는 벚꽃이 십 리에 날리며 화사하게 봄을 재촉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단 이틀간 진행되는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에서는 섬진청류와 화개동천 25km 구간을 아름답게 수놓은 화사한 벚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반백년 수령의 1,200여 그루 빛나무가 끝없이 이어진 길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은어회, 재첩국, 참계탕 등 섬진강 맑은 물이 키워낸 하동의 향토음식도 직접 맛볼 수 있다. 하얗게 흩날리는 꽃비를 맞으며 맛과 멋이 어우러진 하동의 봄을 누리보자.

📅 2017.4.1(토) ~ 4.2(일)

📍 하동군 화개면 일원

☎ 055-883-5715 (화개면 청년회)

🌐 <http://tour.hadong.go.kr>

여수 거북선축제

여수시의 대표 축제인 여수거북선 축제가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간 개최된다. 1967년 시작되어 올해 제 51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2017 전라남도 우수 축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임진왜란의 여러 상황을 다양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통제영 길놀이 출정 공연, 이순신 장군의 명궁 솜씨를 닮은 명사수들의 전국 궁도대회, 소년 이순신 선발대회 등 지역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준비되어 있다. 호국충절의 얼이 살아 숨 쉬는 5월의 여수에서 가슴 벅찬 울림을 느껴보자.

📅 2017.5.4(목) ~ 5.7(일) / 4일간

📍 이순신광장, 여수해양공원 일원

☎ 061-659-4742 (여수시 관광과)

🌐 <http://tour.yeosu.go.kr>

순천만 천문대 하늘 체험

생태수도 순천에 가면 아름다운 별을 직접 볼 수 있는 순천만 천문대가 있다. 도심으로부터 2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데다, 전국에서 드물게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이곳에는 8종의 천체 망원경이 갖추어져 있어 태양, 달, 금성, 직녀성 등 다양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천문대와 달리 낮에는 새를 관찰할 수 있어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별빛체험, 햇빛체험, 밤샘 천문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는 순천만 천문대에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상이, 홈페이지 예약 필요

📅 연중

📍 순천만 천문대

☎ 061-749-6056 (천문대 사무실)

🌐 www.suncheonbay.go.kr

Work

정리 편집실

정신없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 일주일, 한 달이 훌쩍 지나버리곤 한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었고 제 같은데 시간이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흘러버린 것이다. 이렇게 매일 바쁘게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눈앞에는 늘 업무가 쌓여있다. 동료직원의 빠르고 능숙한 일처리를 보고 있노라면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은 대개 비슷하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업무의 효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자꾸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스케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효과적인 스케줄 관리는 일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간 압박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줄 것이다.

업무능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시간 활용법



업무계획표로 업무 관리하기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파악해 업무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계획표는 단순히 할 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계획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업무의 중요도나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 없이 손에 잡히는 것부터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급한 업무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거나 중요한 업무를 하등지등 처리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작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업무의 목표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정하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계획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가 아닌 프로젝트 진행의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달성 수준을 검토한다

계획의 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크하면 내가 얼마만큼 일에 집중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매일 계획한 업무의 달성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의 시간을 가져보자.

계획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실행가능한 계획 세우기

실패하는 계획표의 대표적인 경우는 의욕을 앞세워 일정을 촉박하게 잡는 것이다. 무리한 스케줄은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스트레스만 증가시킨다.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업무 추진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기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해결해야 하는 업무의 세부 추진 방안은 상사, 동료와 공유하여 엉뚱한 업무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생산성을 높이는 시간 관리법

계획을 설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을 잘 이행하는 것이다. 업무 스케줄을 꼼꼼하게 정리하면 각각의 작업마다 현실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적절한 시간 분배가 업무 생산성을 돕는다.

업무효율이 높은 시간을 공략하자

하루 중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시간은 오전 업무 시작 후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이라고 한다. 무려 30% 이상 더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이 시간에는 중요도가 높고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점심시간 전후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에는 단순 업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자투리 시간 절약하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자투리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투리 시간은 이메일이나 파일을 체크해 정리하는 시간, 급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등으로 활용하면 좋다. 무심코 흘러가는 시간이 놀라운 업무 성과로 바뀔 것이다.

휴식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긴 작업시간은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적당한 휴식은 심신을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고 업무 능률 또한 향상시킨다. 일이 끝나면 쉬겠다는 생각보다는 휴식시간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다. 퇴근하면서 업무를 집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결단력도 중요하다.



신용이 곧 자산

신용등급 관리 노하우

신용등급이란 개인에 대한 각종 신용 정보를 종합해 신용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 대해 수집한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에 대해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우량 고객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책정된 신용등급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의 금융 회사가 개인 고객과 금융 거래 시 대출 여부나 한도, 적용 금리 등을 정할 때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신용등급은 과거 일정 기간의 신용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책정되는 만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용등급의 존재는 알고 있으나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신용등급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관리법을 알아봅시다.

개인 신용평가의 반영 요소는?

신용등급의 긍정적 반응 요소

1. 대출금 상환 이력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한 정보는 소비자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평가 시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신용등급 관리 노하우 나만 믿고 따라와~!



2. 신용카드 사용 금액 및 기간

신용카드 사용 시 적절한 금액을 결제하고 무엇보다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연체 상환 및 연체 상환 후 경과 기간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 평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연체금을 상환하는 즉시 연체 이전의 등급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연체 없이 성실한 금융생활을 하다 보면 등급이 회복됩니다.



4.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

통신/공공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신용평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신용등급의 부정적 반응 요소

1. 대출금 연체

대출금 연체는 신용등급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에서 연체정보가 수집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대출 및 대출 건수 증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가 커지고 이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제2금융권 대출

신용조회회사는 금융업권별 연체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연체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용 평점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서비스는 일정 기간/금액 이상 이용하게 되면 부채의 증가로 보아 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신용등급 관리 노하우

신용등급, 1년에 3회까지 무료로 확인 가능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평소 신용등급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4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가능 사이트

나이스 지킴이 (www.credit.co.kr),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거래실적을 유지·관리

금융회사는 자사 거래실적이 많고 우수한 고객에 대해서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하고 동 회사를 통해 금융거래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는 안 돼요 안돼

대출 원리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 통신요금, 공공금 등의 연체는 신용 등급을 하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사 등으로 이용대금 청구서를 수령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각종 이용대금은 연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주소지는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 제공 사이트

금융주소 한번에 : 전 금융권에 등록된 주소의 변경이 가능
KT 무빙서비스, 무브원 : 통신, 유통, 신문, 잡지 등 여러 분야
제휴사의 주소 변경이 가능

목은 빚을 먼저 갚아야

신용등급의 관리를 위해서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신용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연체했다면 금액이 큰 것보다 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갚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에 관한 오해와 진실

신용등급을 확인하면 등급이 하락한다고 하던데?

신용등급을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조회 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해도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GFEZ 함께 만드는 더 큰 시너지



탐나는 정보가 가득,

sns

<http://webzine.gfez.or.kr>

GFEZ 저널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GFEZ 저널을 읽고 느낀점이나 독자의 솔직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이 코너를 통해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물론 향후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칼럼이 좋았어요!

62th Theme 눈 내린 아침



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나 수필을 제출해 보고 싶습니다.
안순재 독자

늘 좋은 내용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GFEZ 잡지 내에 일정 지면을 일부뿐이라도 할애하시어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GFEZ Cartoon 세풍산업단지가 미래소재산업...



세풍산업단지가 미래소재산업 특화단지로 개발된다는 소식이 쉽게 설명된 카툰이 좋았습니다. 광양만을 통해 쉽게 물류 출입이 가능하고, 여러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김한별 독자

QR코드로 참여하는 Quiz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퀴즈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퀴즈 참여 및 의견을 남겨주신 독자들과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전달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퀴즈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광양청 웹진 주소 (<http://webzine.gfez.or.kr>)를 입력해 비밀번호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응모기간 2017년 6월 10일 까지

당첨자 선물

- 1등 (1명)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 2등 (2명)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권



- 3등 (5명)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지난호 당첨자

- 1등 안 * 일(2060)
- 2등 김 * 별(4869), 안 * 재(4420)
- 3등 박 * 정(2053), 김 * 주(2109), 이 * 정(3333)
박 * 희(4149), 손 * 인(6317)

신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다양한 비즈니스기회



- 5개 지구 21개 단지(77.02km²)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산업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물류산업-광양지구
- 제조산업-울촌지구
- 주거산업-신덕지구
- 복합산업-하동지구
- 관광산업-화양지구



최적의 산업인프라



- POSCO 광양제철소
- 여수국가산업단지
- 풍부한 산업단지 (전국산단의 13.52%-189.6km²) 보유
- 저렴한 지가로 즉시 입주가능한 산업단지 확보

편리한 교통인프라



- 세계적인 국제항만-광양항 (2016년 약277백만톤 처리)
- 1시간권 항공시설-4개 보유 (광주, 여수, 사천, 무안)
- 수도권 연결 KTX (여수-순천-서울)
- 5개의 고속도로 연결 (수도권 3시간대 접근 가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떠오르는 투자 중심지 세풍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 사업면적 : 2.42km² (73만평)
분양면적 (53만평)
-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 외국인 투자지역
- 바이오 패키징 산업
- 제철 연관산업
- "2017년 12월말까지 투자자에 한해 분양가 15% 할인!"

관광·레저, 생활환경



-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
- 3개의 국립공원과 100km이내 530만명 배후시장확보
-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토지가격과 수용권 부여
- 정주여건을 위한 주거, 교육, 의료, 레저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지원

- 투자상담에서 사업개시까지 Non-Stop 서비스
- 업종에 맞는 입지선정 지원
- 시장조사 및 기업 협력파트너 알선
- 경영지원 보조금 지원